

중소·중견기업 글로벌화 세미나

2013. 4. 21 화 |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

주최 | 한국수출입은행 | Kbiz | 중소기업중앙회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왼쪽 다섯번째), 수출입은행 김용환 행장(왼쪽 여섯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 글로벌화 세미나 한국수출입은행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지원 강화

한국수출입은행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4월 2일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중소기업 글로벌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내수시장의 성장 둔화, 신흥시장의 빠른 성장 및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확대 등에 따라 중소기업들도 글로벌 경쟁패러다임 도입이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기획됐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한국수출입은행(행장 김용환)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4월 2일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중소·중견기업 글로벌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용환 행장은 환영사에서 "국제사회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우리 중소기업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한국수출입은행이 대기업들을 위한 은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출초보기업에게는 경영 컨설팅 및 자금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문 회장은 환영사에서 "다른 일반은행과는 달리 한국수출입은행은 대출의 93%가 신용대출이다. 그래서 대기업보다

는 중소기업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한국수출입은행에 감사드리며, 중소기업이 새로운 수출전략을 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Session I과 II로 나눠 진행됐는데, Session I에서는 '중소·중견기업 글로벌화 현황 및 전략'이라는 주제로 한국수출입은행 이미혜 책임연구원이 '신흥국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전략'에 대해, 한국수출입은행 조양현 팀장이 '중소기업의 신흥시장 수출확대 방안'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해외민간대사 김응기(㈜비티엔 대표)가 '인도 투자여건 및 진출방안'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해외민간대사 김유림(넥스페어 대표)가 '카타르 투자여건 및 진출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Session II는 '중소·중견기업 글로벌화를 위한 금융지원방안'이라는 주제로 신재경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사무관이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에 대해, 박상우 수출입은행 상생금융실팀장이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중소기업 수출, 8만6천개사로 전체 2.8% 불과

국내 내수시장은 인구 감소 및 노령화 등으로 성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판로확대가 가능한 수출은 중소기업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수출은 내수시장의 소비 부진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또한 수출은 단순 판매망 확대 그 이상의 역할을 한다. 한국 경제의 생산구조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하면, 대기업이 수출을 하는 형태로 진행되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납품 단가 인하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수출을 통해 판매망을 확대하면 국내 대기업과의 종속적 하청구조를 탈피할 수 있고, 해외 바이어 확보시 국내 대기업과의 납품가 결정에서도 협상력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은 제조업 34만개를 비롯해 소상공인 283만개, 소기업 27만개, 중기업 12.5만개로 전체 사업체의 99.9%를 차지하고 있지만 고용은 86.9%, 생산액은 47.5%, 수출은 18.7%에 불과하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은 2012년도 기준 8만6천개사로 전체 2.8%만을 차지하고 있는 등 미국 10.0, 독일 3.9에 비하면 여전히 적은 수준이다.

신재경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사무관은 "중소기업청에서는 수출중소기업을 위해 2013년 600개 사에 72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중소기업 통번역센터, 수출인큐베이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25조원으로 확대

한국수출입은행은 세계경기 불확실성 지속과 경제여건 악화에 대비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금융지원규모를 23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했는데, 전체 대출의 45%를 차지하는 22.5조원을, 보증비용에 2.5조원을 책정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 지원전담 컨트롤타워인 '기업성장지원단'을 신설했으며, '수출 초보기업 육성 프로그램'에서는 대출 승인직전년도 해외직수출 1백만 달러 이하의 중소기업에게 신용등급과 대출기간에 따라 최대 0.5%p까지 금리를 우대하며, 포괄수출금융 대출한도도 수출실적의 60~90%였던 것을 100%로 확대했다.

박상우 한국수출입은행 상생금융실 팀장은 "한국수출입은행은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전 단계에 걸친 맞춤형 수출입금융 지



중소·중견기업 글로벌화 세미나 전경

원체제를 완비하고 있다. 기술개발, 시설확충, 제작, 해외판매 등 각 단계마다 필요한 지원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 국민평균연령 24.9세... 일본보다 앞선 구매력

인도는 12억4천만명이 살고 있는 나라로, 남한 면적의 33배에 이른다. 세계 1,2위의 농업생산국가로 국민 평균연령이 24.9세에 불과한 젊은 국가다. 화교에 이어 세계 2위 규모의 인구를 자랑한다.

김응기(주)비티엔 컨설턴트는 "인도를 미개척 국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인도는 미개척 국가가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이 경쟁하고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의 장이다. 내부 환경을 살펴보면 저가시장이 아닌 가치지향 소비로 전환중이다. 수출성형기를 보더라도 51%가 자국산이고, 49%가 수입으로 이뤄져 있는데, 수입의 50% 이상이 고가물품인 유럽산이다. 인도 시장의 20~30%가 고가시장으로 형성돼 있다"라며 "주목해야 할 점은 인도 국민 평균연령이 24.9세로 젊다는 점이다. 젊은 만큼 구매력 역시 왕성해 일본의 구매력을 앞지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